

KEF 경총
KOREA
ENTERPRISES
FEDERATION

매출 100대 기업 2020년 영업실적 및 지출항목 특징 분석

2021. 6

< 분석개요 >

- ▣ 「매출 100대 기업 2020년 영업실적 및 지출항목 특징 분석」는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)가 2019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2020년 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임. 단, 금융 및 공기업과 결산월 12월이 아닌 기업 등은 제외

1

100대 기업, 매출액 6.7% 감소, 영업이익 2.5% 감소 영업이익률 4.80%로 2019년보다 소폭 개선

① **(매출액)**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2020년 총 매출액은 984.1조원으로 2019년 총 매출액(1,054.8조원) 대비 6.7%(△70.7조원) 감소, 2018년 총 매출액(1,092.9조원) 대비 10.0%(△108.9조원) 감소

※ 삼성전자(100대 기업 총 매출액의 16.9% 차지, 2020년 기준)를 제외한 99개 기업의 2020년 총 매출액은 817.7조원으로 2019년(900.0조원) 대비 9.1% 감소, 2018년(922.5조원) 대비 11.4% 감소

- **(매출액 규모 順)**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액은 166.3조원으로 1위를 기록, 이 외 현대자동차(50.7조원), 기아자동차(34.4조원), SK하이닉스(30.5조원) 順

- **(매출액 감소기업)** 2019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은 63개社로 2019년 매출 감소기업(2018년 대비, 53개)보다 10개社 증가

※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면서 수출과 민간소비 위축

▶ 분기별 수출증감률(전년동기비, 산업부)

: △1.9%(‘20.1q)→ △20.3%(2q)→ △3.4%(3q)→ 4.2%(4q)

▶ 분기별 민간소비 증감률(전년동기비, 한국은행)

: △4.8%(‘20.1q)→ △4.0%(2q)→ △4.4%(3q)→ △6.5%(4q)

② **(영업이익)**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2020년 총 영업이익은 47.2조원으로 2019년 총 영업이익(48.5조원) 대비 2.5%(△1.2조원) 감소, 2018년 총 영업이익(104.6조원) 대비 54.9%(△57.4조원) 감소

※ 삼성전자(100대 기업 총 영업이익의 43.4% 차지, 2020년 기준)를 제외한 99개 기업의 2020년 총 영업이익은 26.7조원으로 2019년(34.3조원) 대비 22.2% 감소, 2018년(60.9조원) 대비 56.2% 감소

- **(영업이익 규모 順)**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20.5조원으로 1위를 기록, 이 외 SK하이닉스(4.5조원), SK(1.7조원), 네이버(1.4조원) 順

- **(영업이익 감소기업)** 2019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60개社*로 2019년 영업이익 감소기업(2018년 대비, 54개)보다 6개社 증가

* 전년대비 영업이익 감소 54개 + 영업적자 지속 6개

⇒ 2019년 100대 기업 영업이익 급감*으로 2020년에는 기저효과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이 전망됐으나, 코로나19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영업이익 감소기업이 2019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추정

* 2019년은 반도체 업황 불황과 글로벌 경기 부진 등으로 100대 기업 총 영업이익이 2018년 대비 53.7% 감소

③ **(매출액 영업이익률)**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.80%로 2019년 영업이익률(4.59%) 대비 0.21%p 상승했으나, 2018년(9.57%) 대비로는 4.77%p 하락

- (전체기업) 2020년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6.7% 감소했으나, 매출원가가 7.9% 감소(판매비 및 관리비는 0.6% 증가)하면서 영업이익률 개선

⇒ 지난해 영업이익률 개선은 2019년 영업이익률이 2018년 대비 대폭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. 다만 2020년 영업이익률은 2018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.

< 100대 기업 영업이익률 추이 >

구분	2018	2019	2020
매출액(A)	1,092.9조원	1,054.8조원(△3.5%)	984.1조원(△6.7%)
(-) 매출원가	875.4조원	886.1조원(1.2%)	815.8조원(△7.9%)
(-) 판매비 및 관리비	112.8조원	120.3조원(6.6%)	121.0조원(0.6%)
영업이익(B)	104.6조원	48.5조원(△53.7%)	47.2조원(△2.5%)
영업이익률(B/A)	9.57%	4.59%	4.80%

주 : ()안은 전년대비 증감률

자료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, 각 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통해 산출

- (삼성전자 제외) 삼성전자를 제외한 99개 기업의 2020년 영업이익률은 3.27%로 2018년(6.61%), 2019년(3.82%)에 이어 하락세 지속

⇒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사를 제외한 98개 기업의 영업이익률도 2.82%로 나타나 2018년(4.58%), 2019년(3.70%)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2

업종별 영업이익 실적 격차 뚜렷

▶ 「운송업」 697.5% 증가 vs. 「정유업」 205.0% 감소

⇒ 100대 기업 업종 구분은 각 사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14개 업종으로 재구성

① (영업이익 증가 : 운송업 등 6개) 업종별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운송업 697.5%, 전기전자업 72.1%, 음식료업 21.4% 증가하는 등 14개 업종 중 6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2019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⇒ (운송업)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로 해상 운임이 상승하면서 HMM(舊 현대상선)의 영업이익 급증.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여객 수요 감소에도 화물 운송 중심으로 수익 구조를 전환하면서 영업이익이 2019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정

※ 운송업 전체 및 주요 기업 영업손익 추이('19년→'20년)

[전체] 2,312억원→ 1조 8,439억원 < 697.5% >

[HMM] △3,286억원→ 9,560억원 < 390.9% >

[대한항공] 2,045억원→ 2,383억원 < 16.5% >

[아시아나항공] △4,867억원→ △631억원 < 적자폭 감소 >

② (영업이익 감소 : 정유업 등 8개) 업종별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정유업 △205.0% (적자 전환), 조선업 △196.7%(적자 지속), 기계업 △70.6% 등 14개 업종 중 8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⇒ (정유업)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원유 수요 감소와 OPEC 및 주요 산유국의 생산량 확대 전략과 같은 요인이 겹쳐 유가가 급락하면서 정유업에 속하는 9개사 중 6개사가 영업적자로 전환

※ 정유업 전체 및 주요 기업 영업손익 추이('19년→'20년)

[전체] 3조 5,668억원→ △3조 7,461억원 < △205.0% >

[GS칼텍스] 8,306억원→ △9,963억원 < △219.9%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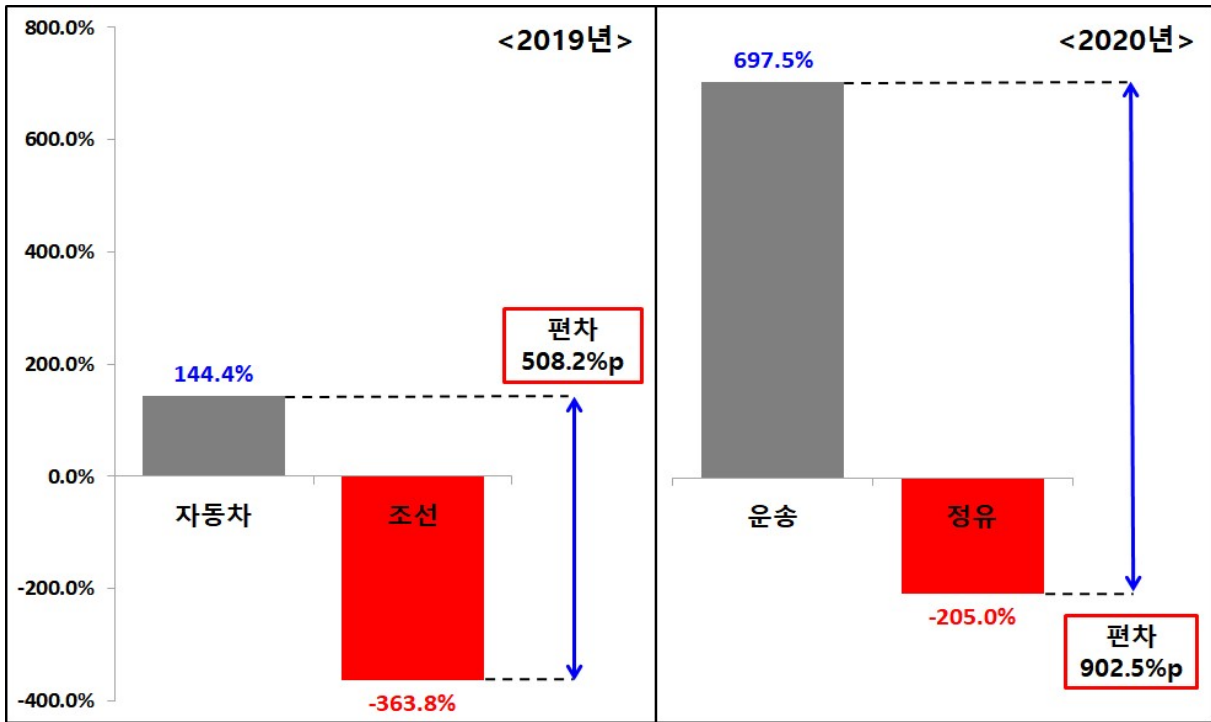
[SK에너지] 3,618억원→ △1조 9,434억원 < △637.2% >

[S-Oil] 4,201억원→ △1조 1,005억원 < △362.0% >

③ (업종별 영업실적 격차 확대) 지난해 영업이익 증감률 최상위·최하위업종 간 차이가 2019년보다 확대됐고, 증가업종群的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과 감소업종群的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 간 차이도 더욱 벌어지는 등 업종별 영업 실적 격차 확대

- (최상위·최하위업종 격차) 지난해 영업이익 증감률 최상위업종(운송, 697.5%)과 최하위업종(정유, $\Delta 205.0\%$) 간 격차는 902.5%p로, 2019년 최상위업종(자동차, 144.4%)과 최하위업종(조선, $\Delta 363.8\%$) 간 영업이익 증감률 격차(508.2%p)보다 확대

< 영업이익 증감률 최상위·최하위업종 영업이익 증감률 격차 >



주 : 업종별 영업이익 증감률은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(손실)을 합산하여 증감률 산출
 자료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, 각 사 사업보고서 등을 토대로 재구성

- (증가업종群과 감소업종群 격차) 2020년 증가업종群의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과 감소업종群의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 간의 격차는 214.9%p(단순평균 격차, 가중평균 격차는 119.3%p)로 2019년 124.4%p(단순평균 격차, 가중평균 격차는 111.5%p)보다 확대

※ 단순평균 방식은 해당 업종群에 속하는 개별 업종들의 영업이익 증감률을 구한 뒤 이를 평균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며, 가중평균 방식은 해당 업종群에 속하는 모든 기업들의 영업손익을 합한 뒤 증감률을 산출하는 방식임.

⇒ (단순평균 방식) 2020년 증가업종群의 업종별 영업이익 증감률 단순평균치인 137.2%과 감소업종群의 업종별 영업이익 증감률 단순평균치인 $\Delta 77.7\%$ 의 격차는 214.9%p로 나타나, 2019년 증가업종群 단순평균치(51.0%)와 감소업종群 단순평균치($\Delta 73.4\%$) 간 격차인 124.4%p보다 확대

⇒ (가중평균 방식) 영업이익이 증가한 6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평균 61.1% 증가했고, 감소한 8개 업종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평균 58.2% 감소해 그 차이가 119.3%p로 나타나 2019년 증가업종群(48.9%)과 감소업종群(△62.6%) 간 격차인 111.5%p보다 확대

< 업종별 영업이익 증감률 >

2019			2020		
증 가	자동차(7)	144.4%	증 가	운송(5)	697.5%
	가스(2)	64.7%		전기전자(9)	72.1%
	서비스(9)	23.7%		음식료품(2)	21.4%
	기계(6)	19.1%		가스(2)	15.7%
	음식료품(2)	3.0%		통신(3)	14.6%
	증가업종群	51.0%(48.9% ³⁾)		건설(8)	2.2%
감 소	유통(16)	△10.4%	증가업종群	137.2%(61.1% ³⁾)	
	건설(8)	△20.1%	감 소	서비스(9)	△17.4%
	통신(3)	△20.4%		화학(14)	△24.4%
	철강(5)	△30.1%		유통(16)	△28.3%
	화학(14)	△38.4%		자동차(7)	△38.5%
	정유(9)	△38.9%		철강(5)	△40.3%
	운송(5)	△62.4%		기계(6)	△70.6%
	전기전자(9)	△76.1%		조선(5)	△196.7%
	조선(5)	△363.8%		정유(9)	△205.0%
	감소업종群	△73.4%(△62.6% ³⁾)		감소업종群	△77.7%(△58.2% ³⁾)
격차	단순평균	124.4%p		격차	단순평균
	가중평균	111.5%p	가중평균		119.3%p

주 : 1. 업종별 영업이익 증감률은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(손실)을 합산하여 증감률 산출

2. 업종별로 기재된 수치는 100대 기업 중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 수임.

3. ()안은 해당 群에 속하는 업종들의 영업이익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수치임.

자료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, 각 사 사업보고서 등을 토대로 재구성

매출 100대 기업 임직원 급여 3.0%, 연구개발비 4.0% 증가

※ 광고선전비(판매촉진비 포함) 8.6%, 여비교통비 50.4% 감소

< 분석 참고사항 >

- 임직원 급여, 연구개발비는 별도 재무제표 주석 상 '비용의 성격별 분류'에 기재된 수치를 활용하여 분석
⇒ 항목별 공시 기업 수 : (임직원 급여) 100개社, (연구개발비) 69개社
- 이 외 복리후생비, 광고선전비(판매촉진비 포함), 여비교통비는 '비용의 성격별 분류'에 관련 항목을 공시하고 있는 기업 수가 적어 '판매비와 관리비'에 기재된 수치를 활용하여 분석
⇒ 항목별 공시 기업 수 : (복리후생비) 92개社, (광고선전비) 82개社, (여비교통비) 71개社

① **(임직원 급여* 및 복리후생비)** 2020년 100대 기업의 임직원 급여 총액은 78조 4,079억원으로 2019년(76조 1,203억원) 대비 3.0% 증가했고, 복리후생비는 3조 3,221억원으로 2019년(3조 2,666억원) 대비 1.7% 증가

* 임금, 상여금, 사회보장분담금(건강보험, 국민연금 등), 퇴직금 등을 포함

※ 삼성전자(100대 기업 급여 총액의 17.0% 차지)를 제외한 99개 기업의 2020년 급여 총액은 65.1조원으로 2019년과 거의 유사(△0.1% 감소)

- (임직원 급여 증가폭 順) 삼성전자가 2019년 대비 2조 3,768억원(21.7%) 증가했고, 다음으로 SK하이닉스 2,727억원(9.7%) 증가, 기아자동차 2,414억원(6.3%) 증가, 삼성디스플레이 2,237억원(11.4%) 증가 順

※ 한화솔루션 임직원 급여가 2019년 대비 2,565억원(98.9%) 증가했으나 한화큐셀 앤드첨단소재 흡수합병에 따른 요인이 큰 것으로 추정돼 순위에서 배제

- 다만 임직원 급여는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(40개社)에서 9.0% 증가*했으나,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(60개社)에서는 3.5% 감소한 것으로 분석

* 삼성전자를 제외한 영업이익 증가기업 39개사의 임직원 급여는 4.2% 증가

⇒ 이러한 차이는 매출 상위 기업들은 대체로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, 이에 따라 실적이 좋았던 기업에서는 성과급이 증가한 반면,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성과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

② **(연구개발비*)** 10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38조 578억원으로 2019년 (36조 6,091억원) 대비 4.0% 증가

* 특정 신기술연구 또는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기업이 지출한 항목으로 회계상 유·무형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임.

※ 삼성전자(100대 기업 연구개발비 총액의 46.5% 차지)를 제외한 99개 기업의 2020년 연구개발비 총액은 20.4조원으로 2019년 대비 2.2% 증가

- (증가폭 順) 삼성전자가 2019년 대비 1조 52억원(6.0%) 증가했고, 다음으로 SK하이닉스 2,540억원(8.9%) 증가, 삼성SDI 1,105억원(15.9%) 증가, 삼성디스플레이 1,067억원(5.6%) 증가 順

③ **(광고선전비* 및 여비교통비)** 100대 기업의 광고선전비(판촉비 포함)는 7조 8,854억원으로 2019년(8조 6,246억원) 대비 8.6% 감소했고, 여비교통비는 3,013억원으로 2019년(6,069억원) 대비 50.4% 감소

* 일부 기업이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를 합산하여 공시하고 있고, 판매촉진비를 개별 공시하는 기업은 25개에 불과해 두 항목을 합산하여 분석

⇒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으로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 같은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, 특히 국내·외 출장 제한 등의 영향으로 여비교통비는 2019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

< 100대 기업 영업실적 및 주요 지출항목 추이 >

구분		2018	2019	2020
영업 실적	매출액	1,092.9조원	1,054.8조원(△3.5%)	984.1조원(△6.7%)
	영업이익	104.6조원	48.5조원(△53.7%)	47.2조원(△2.5%)
주요 지출 항목	임직원 급여	76조 4,114억원	76조 1,203억원(△0.4%)	78조 4,079억원(3.0%)
	복리후생비	3조 849억원	3조 2,666억원(5.9%)	3조 3,221억원(1.7%)
	연구개발비	33조 5,173억원	36조 6,091억원(9.2%)	38조 578억원(4.0%)
	광고선전비 (판촉비 포함)	8조 3,798억원	8조 6,246억원(2.9%)	7조 8,854억원(△8.6%)
	여비교통비	5,945억원	6,069억원(2.1%)	3,013억원(△50.4%)

주 : 1. ()안은 전년대비 증감률

2. 주요 지출항목은 재무제표 주석 상 '비용의 성격별 분류'와 '판매비 및 관리비'에 기재된 수치 활용
자료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, 각 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

4

업황이 양호한 업종은 규제혁신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전 어려움을 겪는 업종은 애로사항 살피 정책적 지원 강화해야

-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영업실적 분석결과, 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에도 영업이익률이 소폭 개선되었으나, 반도체 기업(삼성전자, SK하이닉스)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하락
- 코로나19로 영업활동이 상당부분 제한되면서 광고비, 판촉비와 같은 마케팅 관련 비용은 감소한 반면, 임직원 급여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비는 증가
- 다만 업종 간 영업이익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
 - 업종 간 실적 차이는 업종별 경기 사이클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, 실적이 나쁜 업종의 업황이 장기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업종 간 고용·소득 격차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
- 올해 1분기 상장기업 실적이 호조*를 보이고 있는 만큼,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성장 가능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은 규제혁신 같은 경영환경 개선 정책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,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살피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함.

* '21.1분기 상장사(691개) 실적(별도기준, 전년동월비, 한국상장회사협의회)

▶ [매출액] 6.9% [영업이익] 43.6% [당기순이익] 50.6%

첨부

100대 기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(2020년)

구분	매출액		영업이익		
	금액(억원)	증감률	금액(억원)	증감률	
1	삼성전자	1,663,112	(7.5%)	205,190	(45.4%)
2	현대자동차	506,610	(3.1%)	7,686	(△51.4%)
3	기아자동차	343,623	(1.5%)	11,691	(△21.0%)
4	SK하이닉스	305,250	(20.6%)	45,459	(128.5%)
5	LG전자	284,353	(△0.8%)	7,470	(350.0%)
6	삼성디스플레이	271,491	(0.2%)	10,795	(240.9%)
7	포스코	265,099	(△12.7%)	11,352	(△56.1%)
8	현대모비스	229,545	(1.5%)	13,738	(△18.2%)
9	LG디스플레이	227,993	(5.3%)	△8,130	적자지속
10	GS칼텍스	211,076	(△34.9%)	△9,963	(△219.9%)
11	LG화학	208,300	(△4.5%)	11,144	(78.5%)
12	SK에너지	199,468	(△38.2%)	△19,434	(△637.2%)
13	포스코인터내셔널	192,248	(△15.5%)	4,246	(△25.3%)
14	삼성물산	190,888	(△4.5%)	2,782	(△52.3%)
15	KT	178,793	(△1.8%)	8,782	(17.5%)
16	S-Oil	167,355	(△31.4%)	△11,005	(△362.0%)
17	현대제철	155,680	(△13.9%)	417	(△85.0%)
18	이마트	142,138	(8.0%)	2,950	(17.5%)
19	현대글로비스	129,100	(△10.8%)	4,940	(△25.8%)
20	현대오일뱅크	124,910	(△34.4%)	△6,258	(△289.3%)
21	LG유플러스	123,529	(0.1%)	8,380	(21.1%)
22	SK텔레콤	117,466	(2.8%)	10,231	(7.5%)
23	현대건설	93,201	(△6.9%)	2,364	(△36.2%)
24	LG이노텍	92,903	(19.3%)	5,613	(56.5%)
25	롯데케미칼	91,713	(△0.1%)	2,067	(△73.3%)
26	삼성SDI	91,014	(10.3%)	2,313	(11.5%)
27	GS건설	88,910	(△6.3%)	6,832	(0.3%)
28	롯데쇼핑	87,081	(△10.2%)	1,340	(△50.6%)
29	GS리테일	85,692	(△0.6%)	2,598	(44.0%)
30	SK네트웍스	80,630	(△23.7%)	△463	적자지속
31	LS니꼬동제련	76,726	(0.4%)	1,889	(△33.7%)
32	대우건설	76,373	(△5.6%)	3,771	(141.5%)
33	SK에코플랜트(舊 SK건설)	75,289	(△4.0%)	1,277	(△52.9%)
34	대한항공	74,050	(△38.4%)	2,383	(16.5%)
35	포스코건설	72,683	(0.8%)	4,235	(34.8%)

36	대우조선해양	70,416	(△15.3%)	1,524	(△43.2%)
37	CJ대한통운	69,361	(5.2%)	2,187	(24.2%)
38	SK종합화학	68,295	(△31.0%)	△666	(△114.0%)
39	삼성중공업	68,255	(△3.8%)	△10,120	적자지속
40	한화토탈	67,554	(△31.3%)	1,034	(△77.7%)
41	현대엔지니어링	64,347	(6.5%)	2,939	(△20.3%)
42	SK트레이딩인터내셔널	62,903	(△45.2%)	2,121	(△15.2%)
43	HMM	62,239	(16.7%)	9,560	(390.9%)
44	CJ제일제당	59,808	(1.7%)	2,871	(41.0%)
45	현대트랜시스	58,698	(△2.7%)	307	(△74.4%)
46	한화솔루션	57,173	(69.0%)	4,250	(97.9%)
47	고려아연	56,521	(8.3%)	7,808	(7.1%)
48	삼성전기	55,978	(11.4%)	4,067	(△8.4%)
49	현대위아	55,855	(△13.6%)	588	(2.9%)
50	롯데건설	50,933	(△4.0%)	3,595	(17.2%)
51	삼성엔지니어링	49,967	(4.7%)	2,467	(27.2%)
52	동국제강	46,137	(△8.7%)	2,487	(85.9%)
53	삼성SDS	45,494	(△10.7%)	5,821	(△15.8%)
54	LG생활건강	44,183	(△2.6%)	7,856	(△8.6%)
55	네이버	41,266	(5.8%)	14,408	(3.4%)
56	SK인천석유화학	40,942	(△39.5%)	△6,628	(△8,659.9%)
57	코리아세븐	40,684	(0.3%)	△85	(△120.2%)
58	롯데하이마트	40,517	(0.6%)	1,611	(46.6%)
59	한화	40,008	(△9.8%)	1,670	(△11.6%)
60	여천NCC	39,445	(△21.2%)	3,010	(△33.2%)
61	현대상호중공업	39,180	(12.3%)	156	(202.2%)
62	SK이노베이션	38,082	(51.7%)	13,295	(19.2%)
63	코오롱글로벌	38,029	(10.8%)	1,820	(32.7%)
64	SK브로드밴드	37,130	(17.1%)	2,346	(78.5%)
65	SK가스	36,318	(△8.6%)	1,879	(22.0%)
66	E1	35,635	(△14.6%)	701	(△43.5%)
67	아시아나항공	35,599	(△39.9%)	△631	적자지속
68	호텔롯데	35,025	(△40.9%)	△2,601	(△180.6%)
69	금호석유화학	34,897	(△5.2%)	5,149	(73.1%)
70	SK	34,740	(7.0%)	16,580	(12.0%)
71	두산중공업	34,514	(△6.9%)	△4,731	(△639.5%)
72	KT&G	34,354	(16.7%)	13,370	(17.8%)
73	삼성전자판매	32,977	(19.4%)	109	(237.4%)
74	한화건설	32,884	(△14.0%)	1,933	(△33.5%)

75	LS전선	32,843	(1.3%)	1,246	(11.1%)
76	LG상사	32,582	(5.8%)	△244	적자지속
77	LG CNS	31,078	(2.2%)	2,106	(13.0%)
78	아모레퍼시픽	30,170	(△22.9%)	1,588	(△64.0%)
79	만도	30,098	(△9.4%)	△107	(△107.4%)
80	쌍용자동차	29,298	(△19.2%)	△4,460	적자지속
81	코오롱인더스트리	29,166	(△9.5%)	1,431	(△19.8%)
82	서브원	28,968	(△3.1%)	638	(△9.0%)
83	하이프라자	28,905	(2.2%)	95	(9.3%)
84	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	28,624	(△9.8%)	941	(△3.3%)
85	호텔신라	28,144	(△38.4%)	△1,760	(△161.9%)
86	한국항공우주산업	28,120	(△9.5%)	1,486	(△47.6%)
87	현대미포조선	27,808	(△7.3%)	66	(△88.6%)
88	CJ ENM	27,183	(△13.9%)	2,504	(△12.8%)
89	두산인프라코어	27,123	(△12.6%)	894	(△49.8%)
90	현대케미칼	27,019	(△26.1%)	△469	(△144.2%)
91	한온시스템	26,801	(0.4%)	566	(△53.2%)
92	엘지하우시스	25,965	(△4.2%)	738	(75.6%)
93	삼천리	23,950	(△5.6%)	551	(△1.6%)
94	GS글로벌	23,237	(△29.7%)	437	(△3.4%)
95	현대코퍼레이션	20,810	(△35.2%)	123	(△56.0%)
96	SK루브리컨츠	20,763	(△30.6%)	2,300	(△15.1%)
97	대림	18,497	(△31.2%)	509	(△27.4%)
98	신세계디에프	16,035	(△43.0%)	△427	(△136.2%)
99	현대코스모	15,016	(△48.3%)	△833	(△181.6%)
100	한국조선해양	1,724	(△94.9%)	△372	(△251.1%)
합계		9,840,562	(△6.7%)	472,285	(△2.5%)

주 : 2020년 매출액 규모 순으로 정렬

자료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, 각 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